향기와 의상

드로테아 디렌
전 베르린종합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학장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의상과 향기－인간은 향수와 의상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Ⅱ.Ⅰ. 의류소재의 등장
　Ⅱ.Ⅱ. 향료의 개발
　Ⅱ.Ⅲ. 의상과 신분
　Ⅱ.Ⅳ. 향수와 신분
　Ⅱ.Ⅴ. 의복과 종교의식
　Ⅱ.Ⅵ. 십자군 전쟁과 르네상스
　Ⅱ.Ⅶ. 시민사회의 등장과 수요의 급증
　Ⅱ.Ⅷ. 자본주의의 발달과 신분계급의 재편성
Ⅲ. 의상과 향기의 벽은 영원히 제거된 것인가?

Ⅰ. 들어가는 말

인간이 지닌 후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五感)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감각이며 또한 가장 동물적인 감각이다. 우리 인간은 직접 보기도 전에 미리 불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방밖으로 나가고 난 후에도 그의 체취를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오감은 우리 자신을 자연과 결합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다. 인간은 자연이 부여한 자신의 신체를 무엇인가로 덮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변화를 준다. 이 특성은 자연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그는 스스로에 관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길잡이로 삼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표상은 관념적이며 늘 같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뀐다.

자연적 특성－비자연스러운 관습?
낙원에 대한 회상－세속적 향수?

언뜻 보기에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양극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둘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어쩌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이 양극을 사용해 왔는지 고찰해 보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간단히 취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므로 아무래도 여기서는 인류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우선 지중해연안에 영향을 미친 고대의 고도문화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여기에 관해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비중을 두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리를 바꿔 온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위대한 문화인 인도 문화와 아랍 문화는 유럽 문화의 발전 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Ⅱ. 의상과 향기ㅡ인간은 향수와 의상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구약 성서는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후각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는 제단에서 사용되는 향신료, 약초 그리고 귀한 식물의 뿌리며 향기를 발산하는 다른 향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다룰 경우, 엄한 벌로 다스리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출애굽기 30장 37, 38절(독일어판 : 역자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모세가 쓴 성서에는 의상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 날 때 가죽옷을 얻어 입었다고 되어 있다. 성서는 그후 몇 세대가 지나고 난 후 사제들의 의상에 관해서도 묘사해 주는데, 거기에는 온갖 장식품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사제복을 언제, 어떻게 입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또 누가 입혀줘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도 들어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최초의 복장 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한 벌로 다스리는 향수의 사용과는 달리 이러한 규칙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나 금지 규정은 빠져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초기 신석기 시대에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신체 보호를 위해서였다. 기후와 생활공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자재들을 전제로 한다. 가죽과 훗날 등장하는 가죽과 유사한 원료들은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에게 선호되었다. 부드러운 나무 껍질이나 골풀 또는 속껍질로 만든 옷은 지중해 유역과 근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즐겨 입었다.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아직까지는 남는 것을 비축해 두고 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일하는 도구로서 잘라져 나간 돌과 가시를 사용했으며 바늘도 이미 사용했다. 짐작컨대 의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 공간 내에서 주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만 만들어 입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주로 여성들이 맡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수의 사용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생활 공동체와 일종의 마을을 이루는 집단들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즉 서서히 농경과 목축생활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자연의 위력을 알게 되었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종속성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의 위력은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나, 반면 파괴를 낳기도 한다. 그리고 자연은 풍년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흉년이 지게 만들기도 한다. 평안한 삶이나 기근 또는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자연에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위력이 자신들보다 높은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위력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자연의 힘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숭배 현상과 종교적 건축물의 등장은 인간의 집단화 현상과 떼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처음에 이것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 제물을 올려놓던 돌 제단으로 시작되었을 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양질의 과일과 곡식 혹은 가축을 골라 불을 사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내로 신들

에게 호감을 사고자 했던 것이다. 생명과 온기를 선사하는 불의 힘은 신들을 상징한다 하여 숭배되었다. 높이 솟아오르는 연기는 하늘과 땅, 즉 정신과 물질의 결합을 상징했다. 이러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연기가 가지고 있는 살균력과 저장력이 확인했던 듯 하다.

이미 고대 고도문화의 전지(前地)에서 의상은 몸에 달라붙어 있는 "세속적" 물질로서 날아가 버리는 "초세속적" 물질로서의 향기를 발산하는 연기와 구분되었다.

기원전 3천년경에 이르러 인간의 생활 형태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거의 때를 같이하여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위대한 발명과 발견 때문이었다. 하늘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 사람들은 계절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달력을 쓰게 되었다. 이것은 농경 생활에서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생각과 사실들을 남겨 두고자 하는 소망과 또 그래야만 하는 필요성-특히 비축 문제에 있어서-은 최초의 상형 문자를 출현시켰다. 녹로와 바퀴, 그리고 수레도 만들어 졌고, 이로 인해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이 수월해졌다. 방적과 방직 그리고 가공에 관한 지식은 놀랄 만한 결과들을 가져왔다.

기원전 3천년경부터 기원전 2천년경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권적인 엄격한 국가가 출현했다. 이 때 무역 가능성도 열려 다른 고도 문화와의 밀접한 연결을 가능케 해 상호 지식을 교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욕망도 가져와 전쟁과 굴종이 생겨났으며 강대국에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고도 문명은 서로 상위를 다퉈 가며 거대한 강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노역을 맡는 엄청난 수의 노예들을 토대로 가파른 피라미드식의 사회가 형성되었다. 직물들은 주로 여성들의 가내 수공업에 의해 생산되었다. 왕과 높은 귀족들의 영지 내에는 이른바 직조 공장이 세워졌다. 거기서는 손재주가 뛰어나고 전문지식을 지닌 노예들과 전쟁 포로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이 일했는데, 특히 시리아 출신의 직조공이 유명했다. 귀한 직물들은 공물에서 으뜸가는 상품이었고 외교분야에서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도 각광받았다.

Ⅱ.Ⅰ. 의류소재의 등장

가공되지 않은 짐승 가죽은 사제나 왕의 권력 상징으로만 남게 되었다. 린네르(아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아마를 심었다. 이집트는 매우 얇은 직물로 명성이 높았다. 울(wool)을 얻기 위한 양의 사육은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에서 히브리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까지 옮겨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울(wool) 취급법과 가공법을 전해 주었다. 히브리인들은 인도의 목화도 알고 있었다. 목화가 직조 원료로서 명성을 얻은 것은 그후로도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뒤였다. 전쟁과 사냥을 위해서는 가죽옷이 마련되어 있었다.

직물 가공은 큰 도약을 이루어 내었다. 초록색, 노란 색, 파란 색, 빨간 색으로 염색이 되었고 예술적으로 수를 놓기도 했으며 제염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고무수지를 이용하여 형체를 고정하기도 했다. 보다 진기하게 개량하고자 하는 노력은 끝이 없었다. 이러한 소망과 욕구는 전문지식과 전문화를 요구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최초의 모사직조공들의 "길드"가 조직되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수요" 이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여 잉여 분을 가지고 무역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재가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제한되기 마련이었다. "생산자들"이 궁색한 차림을 하고 있을 때 피라미드 모양의 국가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왕과 귀족 그리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상부에 군림해 있는 고위 성직자들- 이러한 사치스러운 의상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림으로써 자신들의 세속적인 권력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늘날 까지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특별한 현상

을 한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원래 의복은 하나로 된 옷이었다. 다시 말해 한 겹으로 된 옷이었다. 모든 국가 형성을 살펴보면 국가의 견고화와 함께 그 국가의 번영을 나타내 주는 상징은 몇 곱절로 늘어난다. 우리들은 오늘 날 두 번째 자동차나 두 번째 집을 가지고 싶어한다. 도무지 뚫고 들어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계급적 제한이 주어져 있는 피라미드식 사회에서 의상은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상이 갖는 이러한 역할 면에서 겹쳐 입는 옷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어쩌면 기후가 이러한 겹쳐 입기의 필연성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어디에도 없었다.

Ⅱ.Ⅱ. 향료의 개발

의상의 의미가 고대에 이르기 직전의 대강국 시대가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해 갔듯이 향수 원료의 사용도 변천을 겪었다. 수세기 동안 최고 성직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신으로 인정되던 왕과 함께 강력한 성직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번제(불에 구운 제물)는 꽃과 약초 및 송진 그리고 마취상태와 황홀경으로 인도해 주는 약제로 대체되었다. 아랍산 미르라와 여러 가지 전설로 뒤덮인 사바산 향, 중국산 계피와 생강, 쿠쉬산 케소꽃철, 크레타산 사프란, 푼트산 아카시아 꽃은 무역에서 활발히 거래되었다. 양귀비와 알라운 그리고 사리풀은 신이나 왕 또는 죽은 자를 섬기는 데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의학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신들을 부르는 구조 요청인 번제의 연기는 여전히 하늘과 땅, 즉 거룩한 힘과 인간의 무력함 사이의 구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성직자 계급은 제물대용품인 향수가 뿌려진 연기와 함께 "거룩한 사치스러움"을 만끽했다. 이 성직자 계급은 이와 같은 초세속적 향기를 다룰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고, 이러한 것들의 생산도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직자 계급은 지배자의 라이벌인 거룩한 존재를 사람들의 머리에 분명하게 심어 주었다. 이들은 식물과 그 효과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감으로써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함께 포괄적인 의학적 지식의 기초를 세웠다. 고위 성직자들은 이러한 의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또는 바빌론의 경우가 그랬듯이 마술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력을 단단하게 다져나갔다. 예를 들면 대중집회에서는 의도적으로 향을 방부제로 사용했다.

Ⅱ.Ⅲ. 의상과 신분

기원전 10세기의 고전 고대 시대는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왔다. 그리스 신화를 읽은 사람이라면 경직된 피라미드식의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를 그리스인들이 국가 조직이나 제식(祭式)에 그대로 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스파르타는 일단 제외하고 -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물론 당시 사회의 번영과 경제는 여전히 노예들의 육체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리스인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한 개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그는 "인간적인" 신들을 숭배했다. 이 인간적인 신들은 인간과 마찬가지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똑같이 향기를 사용하고 옷을 입었다.

의상에는 고유한 형태가 없다. 직사각형과 반원형이 기본형태였고 남성과 여성 의복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걸치고 드는 것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직물의 명칭이 개개의 의복명칭으로 옮겨간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키톤은 마로된 셔츠 소재였고 클래미스(그리스인들이 걸치던 망토)는 실을 강하게 비틀어 만든 울 소재였다. 성직자들이 입는 특수한 의복이나 제복은 없었다. 다만 연극에서는 의상을 통해 신분과 계급을 구분 지어 주었다. 코턴(고대 그리스의 비극 배우가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던 창이 두꺼운 반장화)은 인간을 땅에서 떨어지게 해주었다. 그리고 마스크는 배우의 얼굴을 가려 주었을

뿐 아니라 개인들을 한 집단 속에 넣어 주었다.

Ⅱ.Ⅳ. 향수와 신분

그리스인은 향수와 발잠 그리고 향기로운 연고와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기름과 향기로운 물과 물분 또한 세척용 기름을 애용했다. 그리고 이 세척용 기름은 일단 바른 다음 줄 같은 것으로 벗기면 향기만 남게 된다. 아테네에서는 향료상인들이 정보 교환의 중심지역할을 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최근 소식과 유행 그리고 모든 변화를 알아 낼 수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향기를 최초로 발명해 내었다 하며 헬레나가 그녀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한다. 사람들은 공간과 의상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렸다.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서 향기를 사용했는가 하면 황홀경에 이르기 위해서 향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약제의 효과와 약초의 치유력은 잘 알려져 있었다. 영토가 확장된 알렉산더 제국에서 서구와 동양의 생활필수품이 뒤섞였을 때 그리스 본국에서도 잉여산물과 사치품이 압도하고 있었다.

로마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들의 정치 간섭이 증대됨에 따라 향기를 내는 재료들은 다시 성스러운 영역으로 밀려들어갔으며 의상은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짓는 예전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로마인이라는 사실은 민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소속성의 문제였다. 로마인이라면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로마 시민은 바깥 세상에 나올 때 토가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을 뿐 아니라, 꼭 그래야만 하는 의무를 가졌다. 토가를 걸치는 것은 매우 복잡했으며 옷 입는 것을 도와주는 특별한 노예의 도움이 필요했다. 몇 백년이 흐르면서 이 특권은 점차적으로 부담스러운 일로 변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틴 대제의 집권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뛰어난 기교를 필요로 하던 원래의 토가 형태에서 오른 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까지 깊게 내린 장식 띠만 남게 되었다.

로마의 정치적 수완과 자의식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 대한 사랑은 향료의 사용에서 독특한 공생(共生)을 출현시켰다. 여기에서 향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분리되었다. 가장은 자신의 몸치장과 가족을 위해 향기를 발산하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을 감독하게 되었다. 종교적 숭배의식을 위한 향기와 연기는 남녀 성직자들이 준비했다. 제정시대에 향기 사용을 제식과 결합시키는 것은 필계였고, 오히려 에로틱한 효과와 유용성이 지배적이었다. 콘스탄틴 대제가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격시켰을 때 그는 분열 국면에 놓인 로마 제국을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을 통해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기독교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 되었다. 이곳이 새로운 로마였다. 이제 사람들은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 경직된 궁정예식과 통제경제, 강제관리, 직업과 직위 세습이 출현했다. 콘스탄틴 대제가 사망하자 제국은 분열되었다. 첫 오백년 동안은 이교도의 전통과 기독교의 관심사를 결합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후기 로마의 사치와 기독교의 금욕은 대립관계에 놓였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 인간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을 신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검소한 옷차림을 즐겼으며 화장품과 향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향과 미르라 그리고 미르테는 기독교에서 예배와 의식으로 전용(轉用)되었다. 후기 로마에서 안락함과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해 널리 사용했던 화장품과 향수는 공중 탕과 집안에 있는 목욕탕에서 몸을 가꾸거나 손님을 접대용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화폐 경제의 도입은 계급의 급격한 분리를 유발시켜 사치품 사용을 북돋아 주었다.

기독교인들이 간단한 의상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세를 보이는 동안, 국가는 복장규칙을 통해 예전의 로마 전통을 살리고자 했다. 이제는 의상형태가 아니라 호화스러운 장식과 장식품의 사치성이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 주었다. 피습한 로마 농토에서는 양털이 이전과 마찬가지

로 의상의 주원료였다. 그러나 제국의 영토 확장과 무역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다각화되자 비단과 마 그리고 모피와 귀한 염료들이 나라 안으로 들어 왔다. 특히 각광을 받은 비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왕들과 궁정 귀족 그리고 부유한 로마 시민들이었다. 로마 시민은 이제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 졌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과 점령지로 편입한 사람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었다.

Ⅱ.Ⅴ. 의복과 종교의식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500년 경 서로마 제국에 작별을 고했다. 교회는 유일하게 확고부동한 자세를 잃지 않고 정치적 기능을 다했다. 기독교의 세속적,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덩달아 커졌다. 그들은 이 세상의 엘리트로서 자신들을 위해 향수와 호화스러운 의상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화 중심지는 왕실과 영주의 궁정에서 수도원으로 옮겨졌다. 수도원에는 고대의 문서가 보관되어 대대로 물려졌다. 기원 후 천년이 흐르고 그 다음의 천년이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새로운 세속적 중심지가 등장했고 그곳은 이탈리아의 전기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 국가들이었다.

의상에서는 세속적 의복에서 성직자들이 입는 옷이 분리되어 나왔다. 그리고 그 형태는 후기 로마 시대를 보존하고 있었으며 기본 윤곽에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 세속적인 의복은 로마와 게르만 형태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자극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대략 800년 경 프랑크 민족의 의상은 독자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전의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경우 이제 성직자와 이 세상의 권력은 칼 대제가 맺은 교황과 황제 사이의 방어동맹에 의해서만 결합되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와 달리 모든 권력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켰다. 그는 거룩한 신성과 속세의 권력을 대변하는 자로서 자신을 위해 향수 뿐 아니라 귀하고 호화스러운 의상을 요구했다. 황제는 교회의 최고 주인으로 머물렀다 (cesaropapismus). 그의 황실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국가관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 결합되었다. 거룩한 신성의 힘과 세상의 권력이 황제의 손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었지만 종교의식의 일종인 연고 바르기와 시신을 닦아주는 염에 쓰이는 향수와 향유 그리고 연고들은 여전히 성직자들에 의해 따로 생산되었다.

그 동안 사람들은 증류하는 법도 알게 되었고, 추출물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알코올의 용해력도 알게 되었다.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화장품과 향수는 대부분 수입되었다. 황제와 그 측근들이 요구하는 비단도 마찬가지로 주로 수입되었다. 유스티니안은 6세기경에 견방적공장에서 일하던 방적공들을 몰래 데려와 독자적으로 양잠을 시작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방적공장의 산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페르시아의 비단과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후기 로마의 호화로운 궁정예복의 형태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장식을 단 소재들로 인해 뻣뻣해졌다. 진귀한 보랏빛은 황제와 황후에게만 사용되었다.

Ⅱ.Ⅵ. 십자군 전쟁과 르네상스

기원 후 천년이 흐르고 두 번째의 천년 세월은 중세의 편협한 사고에서 시작하여 우주 여행 시대로 끝난다. 1096년 교황 우르반 2세는 기독교 세계를 최초의 십자군 전쟁으로 몰고 갔다. 이슬람교와의 대결은 400년이 걸렸다. 이방과 이방인은 그 때까지 야만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매우 세련된 동양의 생활 방식을 접하고 문화와 신앙을 초월하여 이방인들도 똑같은 장단점을 지녔으며 마찬가지의 선량함과 잔혹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 교회의 구조를 뒤흔들어 놓았

고, 이것은 1500년대까지 이어졌다. 십자군 종군자들은 타지에서 얻은 지식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동양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받아 들였다. 중세 의상의 형태 중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의 커다란 충격은 13세기와 14세기 그리고 15세기의 파괴적인 전염병이 가져왔다. 이 전염병들은 전 유럽대륙을 휩쓸고 지나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대를 이을 자손도 남기지 않은 채 가족 모두를 몰살시켰다. 그 결과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 했던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엉뚱한 직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전 유럽에 걸쳐 사회 구조가 새로운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교회는 유일하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남았다. 그러나 교회의 "인간적인" 육신들 역시 이러한 변혁의 물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로마교황령은 어쩔 수 없이 세속화되었고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 점점 더 특권과 사치 그리고 허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공중탕에서 향수를 쓰는 것이 유행이 되다시피 하자 거기에 사용되는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고 이것은 향수를 직업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향수 생산 특허는 조미료 생산자 조합에서 시작하여 약사 조합을 거쳐 향수 제조 사들에게로 이어졌다. 향수 제조사들은 12세기 초엽에 독자적인 길드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4년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하며 교육이 끝났어도 3년간은 조수로 일해야 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후라야 비로소 향수 제조사가 될 수 있었다.

이윤과 재물을 바라는 소망에 호경기가 합쳐져서 향수제조사들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따금 진귀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들면 묵주와 마돈나상 같은 물건들에 "기독교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향수를 뿌리는 것이었다.

이와 유사한 조급함을 보이는 발전상은 의상 형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의상에서도 조합에 속한 재단사들이 만들어 내는 전문적 생산이 지배적이었다. 독자적인 직물 생산은 이제 시골이나 수도원에만 남아 있었다. 수도원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실제 수요 외에 고위 성직자들의 값비싼 의상과 교회내부 시설에 필요한 귀한 직물들을 생산해 냈다. 직물, 특히 마원단은 농민들의 납세의무에 속했다. 수입한 비단과 브로케이트 소재는 높은 가격 때문에 가장자리 장식으로만 사용되었다.

15세기와 16세기는 의상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과제를 안겨다 주었다. 기독교 신앙의 실현은 모든 육체의 속성을 정신으로 억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세속성과 감각적 즐거움이 시대적인 동요의 결과로 등장하여 정신에 치중하는 경향에 대립하게 되었다. 이제 의상은 신체 보호나 단순한 장식의 의미를 벗어나 향수가 뿌려진 교회의 물건들처럼 그것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몸을 표현해야만 했다. 의상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의 비합리적인 형태로 발전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밖에도 복장 규칙을 수단으로 하여 타격을 입은 피라미드식의 계급질서에 다시 견고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시민계급은 급속한 패션 변천 속에서 귀족을 모방했으며 귀족은 그들대로 부유한 시민계급의 패션을 따르려 했다. 이상적인 삶으로 여겨졌던 깔끔한 차림새의 무위도식이 의상에 반영되었다. 허리를 꽉 조이는 타일레(Taille)는 코르셋의 선구자였다. 그리고 질질 끌리는 옷자락과 아래로 축 늘어진 소매, 그리고 짜델른(Zaddeln) 과 쉘렌(Schellen) 그리고 발 길이의 3배나 되는 신발의 뾰족한 앞꿈치와 머리에 감는 천 또는 두건이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다.

Ⅱ.Ⅶ. 시민사회의 등장과 수요의 급증

16세기의 위대한 발명인 대학의 설립과 번창, 천문학과 자연과학의 지식은 개인적인 생활 욕구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를 국민계층에 폭

넓게 확산시켰다. 종교예식에 사용하던 향수 제조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여기서 각기 다양한 목적에 쓰이는 향수를 만드는 산업은 대단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향수 자체만 생산과 사용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천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향수의 형태도 더불어 중요해졌다. 제일 먼저 프랑스에서는 액체로 된 향수와 고체로 된 향료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독자적인 산업부문이 출현했다.

힘을 얻은 시민계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수단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16세기에 새로운 가치관단을 가져왔다. 이제 이들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노동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세기 말엽의 자유로운 몸동작을 방해하던 부분들이 이제 사라지며 셔츠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의상에 대한 수요가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왕가와 스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자유로운 요소들이 정체된 상태였다.

17세기와 18세기의 식민지 형성은 향수와 그 주변 분야 그리고 직물 분야에서 예견하지 못했던 원료를 개발해 내었다. 당시 프랑스 궁정은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 프랑스 궁정의 영향력은 유럽을 벗어나 루이 14세의 집권시기에 그 절정에 도달했다. 이제 교회는 향수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다. 쾌락을 중시하는 바로크와 로코코는 향수의 생산과 사용 면에 새로운 비중을 부각시켰다. 의학과 마술의 경계선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향수가 에로틱과 황홀경을 선사해 주기를 원했다. 위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향수의 소비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향수 제조사는 이제 자신이 합성한 향수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거하는 방마다 매일 다른 향수를 뿌리게 했다.

이렇게 해서 개개의 향수의 거래 시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하락시켰다. 향수는 이미 17세기 프랑스의 수출품목 중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품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수 이름들은 18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Farina는 1709년에 Revillion은 1734년 그리고 Yardley는 1770년, Houbigant은 1774년에 처음 나왔다. 사람들은 회사 상표와 제조업자의 주소, 성명 그리고 상품 목록과 가격 목록 같은 현대적인 광고 기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상품의 특성성에 따라 값이 결정되었다. Moschus와 Ambra는 황금보다 비쌌다.

향수 분야에서 프랑스 궁정이 "유행의 선구자"가 되었듯이 당시 직물의 유행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프랑스 궁정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널리 알려진 원료 중에는 인도와 소아시아의 면이 첨가되었다. 1793년 Whitney가 목화씨를 빼 주는 조면기를 발명하기 전까지 면은 가격 면에서 비단의 값과 맞먹었다. 레이스와 고급 비단 생산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프랑스는 방직 공업을 장려했으며 이따금 수입을 금지시켜 유럽 인접국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 이제 패션분야에서는 신분의 비중이 주어졌다. 궁정예복, 즉 고급 패션 분야에서는 파리가 중심지였다. 이와 함께 자의식이 성장한 시민 계급의 패션이 출현하였고, 이 패션의 원천은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18세기 말엽 의상은 정신적 자세와 신념을 나타내는 표현의 수단이 되었다. 이런 연유에서 프랑스 혁명기간 중 엉뚱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근본적인 변화가 도래했다. 이 변화는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비롯된 정치적 동요는 여러 가지 형태와 강도로 절대주의와 계몽주의의 전 영향권으로 계속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국내 권력 쟁탈전은 공화정에서 왕정제로 다섯 번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동요는 향수와 의상에 새로운 특성을 지닌 새로운 사용자 그룹을 등장시켰다. 여기에 급격한 기술 발전이 합쳐졌

다. 이러한 기술상의 발전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의 방향전환"을 가져왔다. 천연 소재가 오늘날에는 대부분 합성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향수제조사와 직물 디자이너보다 이제는 화학자의 발언권이 중요해졌다. 화학자는 대규모의 수요자들이 적당한 가격으로 고전적인 향수를 살 수 있고, 발빠른 패션 변천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기술 수준은 합성 소재의 발전에 두개의 방향을 허용해 주고 있다. 우선 그 첫 번째는 매우 값비싼 천연소재를 모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롭고 독자적인 상품의 개발을 가능케 해고 있다. 알데히드, 황단 그리고 엽록소 향수, 해류복합물 같은 것이 향수의 새로운 개발 물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상상력에는 부합되나 실제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의상에서는 포플린이라든가 플란넬 또는 공단처럼 원래 원료와 결합되어 있던 직물은 이미 오래 전에 합성 소재에 밀려 버렸다. 두꺼운 털실에서 시작하여 얇은 견사에 이르기까지 합성 소재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밖에도 부직포, 신축성소재, 비닐 등 신 소재의 개발은 폭넓게 의상 시장을 정복하고 있다.

Ⅱ.Ⅷ. 자본주의의 발달과 신분계급의 재편성

19세기에 이미 돈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치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성직자의 신분 또는 귀족이라는 출신성분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고, 오로지 자본만이 주요 변수였던 것이다. 즉, 모든 사회적 재편성은 새로운 수요자를 탄생시켰다. 산업은 오늘 날 자유화의 물결이 지나간 시장에 모든 종류의 향기로 대응하고 있다. 각기 다른 강도를 지닌 향수, 비누에 이르기까지 온갖 화장품, 보디 로숀, 보디 샴푸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소비자 분석을 통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국민 계층의 욕구를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 성공한 사람, 건달, 유혹적인 사람, 수줍어하는 사람 등.

냄새를 다 없애 버리는 탈취제, 즉 방취제도 대단한 힘으로 우리 속으로 파고들어 온다. 이 방취제들은 우리 몸이 발산하는 모든 자연스러운 체취에 전쟁을 선포한 후 우리 몸에서 자신의 체취가 아닌 다른 새로운 향기가 나도록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새로운 향기는 우리 몸에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으로도 파고들어 늘 신선한 향기를 내뿜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꽃향기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들의 목욕물도 레몬의 힘에 의해 깨끗해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사람들은 향기를 이용하여 분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한다. 향기를 방안에 들여보내면 작업 열과 구매욕구 그리고 식욕을 높여 주고 긴장 해소 효과를 강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울분을 없애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와 있다. 이미 5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심리 조종이 있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조종자와 조종 목적 그리고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달라졌다는 것 뿐 이다.

의상의 발전도 그 구조가 비슷하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상류 시민계급은 자신들의 의상과 자녀들의 의복을 재단사에게 맞춰서 입었다. 기성복은 가격 면으로 따지자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그러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에게는 기성복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원료의 품질 개선과 전문기계의 등장은 보조 노동력과 견습생들의 수적 증가와 맞물려 생산의 차별화를 가져왔다. 이제 사람들은 생산품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몸이 뚱뚱해진다 해서 키까지 같이 크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뚱뚱하다 하여 무조건 나이가 든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도 이 새로운 인식에 속한다. 이

렇게 하여 새로운 기성복 사이즈가 잇달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밖에 소비자의 행동도 변했다. 청춘과 여성해방 그리고 활동성의 승전행렬에서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으로 급속한 패션을 뒤따르고자 한다.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옷을 보고 그 자리에서 평가한 다음 집으로 가져가 한 시즌이 지나면 후회없이 벗고자 한다. 맞춤 복은 부유층과 신체 요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려대상이 된다. 20세기의 상반기 동안 재단사들의 아틀리에에서는 유명한 동시대인의 의상을 모방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간수하기 쉬운 옷을 찾는다. 고급 예복과 규격이 정해져 있는 정장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입는다.

향기와 의상의 경우 각기 인지도를 얻는 과정도 공통점을 갖는다. 원래는 어떤 향수를 사용하는 자나 또는 값비싼 예복을 입은 자가 그 물건에 의미를 부여했었다. 예를 들면 신이나 고위 성직자 혹은 왕이나 영주, 부유한 시민이 거기에 속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현상이 출현하여 결과적으로 오늘날에는 소비자의 익명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Ⅲ. 의상과 향기의 벽은 영원히 제거된 것인가?

초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구분도 이제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향기든 아니면 의상이든 오늘날에는 오로지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알뿐이다. 그의 이름은 창작품보다 더 중요해졌다. 그 이름은 여러 가지 다른 생산물을 줄줄이 끌고 가는 중요한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전 현상은 이름만 걸고 하는 단순한 거래로까지 이어진다. 가브리엘라 사바티니는 향수를, 슈테피 그라프는 스포츠웨어를, 가르딘은 레스토랑을, 로버트 레드포드는 소스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제 남성용 과 여성용 향수의 구분도 없어졌으며 남성복과 여성복의 경계도 사라졌다. 이것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나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별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를 뿐이다. 이러한 이상적인 발전이 계속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미래의 과제로 남게되었다.

마를린 몬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옷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들 한다 : "샤넬 넘버 파이브(Chanel No. 5)" 라고.